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엔터처

www.m-teacher.co.kr

vol.18 | 2018년 3월호

##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 식품·의약품 첨가물 분석하며 식의약 전문가로 성장!



타르색소 분리 실험중인 학생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한 섭취와 복용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식약처 업무를 배우고 체험해볼 수 있는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을 각 지방 식약청을 통해 운영한다. 이중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인증 받은 곳.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은 식약처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비자들이 식품이나 첨가물을 섭취하기까지 어떤 관리가 이뤄지는지, 식품 중 유해성분은 어떻게 검사하는지 등을 배우는 것.

업무 소개가 끝나면 식약청 내 실험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갖는데, △식품 분석실 △의약품 분석실 △잔류화학물질 분석실 △중금속 기기분석실 △미생물 검사실 △중금속 전처리실 등을 둘러보며 식약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견학 이후에는 본격적인 실습수업이 진행된다. 올해는 타르색소 분리와 이산화황 검사가 예정

되어 있다. 먼저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색소와 그렇지 않은 색소가 있음을 배우고, 색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에서 색소를 분리하는 실험을 해보는 것. 식품 첨가물인 이산화황이나 보존료 검사도 이뤄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과학적인 식·의약품 안전 관리를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은 서울시 내 중·고등학생이 신청 가능하다(서울 외 △부산 △광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도 비슷한 내용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올해 5월, 7월, 9월, 10월 총 4회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당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3시간이고 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 (ggoomgil.go.kr)에서 지역 진로체험지원단과 연계하여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640-1499

▶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 **체험활동 연관 직업**

식품학 연구원: 식품 중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식품 가공, 생산, 포장,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다. 식품학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반응과 생명 현상을 관찰하는 끈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과학적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탐구력과 분석력도 갖춰야 한다.

● 법무부 소속 준법지원센터의 ‘보호직 공무원 진로체험’

## “보호관찰 필요한 이들의 지도·감독 계획 직접 세워요”



전자발찌 착용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부산준법지원센터 제공

‘공무원’이라고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준법지원센터(구 보호관찰소)에는 범법자 중 집행유예·가석방 등을 이유로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생활하되, 범죄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한 이들을 지도·관리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있다. 중학생들에겐 다소 낯선 직업. 이에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직 공무원 업무를 수행해볼 수 있는 ‘보호직 공무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중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계획을 세워본다. 나아가 해당 계획이 정말로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더 나은 지도 방안은 없는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범법자 교화 및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는 보호직 공무원의 역할을 몸소 수행해보며 리더십도 함양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것. 또한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쓰는 전자발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제재할 때 사용하는 수갑·포승 등의 도구도 직접 사용해본다.

특히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현장견학이 이뤄진다. 셉테드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낙후된 지역에 비상등 및 CCTV 설치, 벽화 그리기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환경개선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보호직 공무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실시되며, 체험시간 및 신청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약 3시간동안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에서 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문의 051-580-3088

김지연 ▶ ▶ 기자 jiyeon01@donga.com

### 체험활동 연관 직업

보호직 공무원: 법무부에 소속되어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도 책임진다. 보호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된다.